병영천댐 기후대응댐 후보지선정, 8년 숙원사업 본격화

강진군, 환경부와 면담… 조속한 사업 추진 건의

주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물그릇 조성 박차

강진군 병영천댐이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선정된 가운데 강진원 군수가 지난 17일 환경부를 방문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기후대응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강군수는 병영면 숙원사업인 병영천댐(홈골제)후보지 선정에 대한 감사 인사와 지난 3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대다수가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홍수 조절용 댐 재개발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병영천 기후대응댐 사업은 병영 주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안전한 삶의 터전과 여름철 호우시 홍수 피해로부터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물 그릇을 크게 조성할 수 있는 홈골제 제체 하부 신규 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협의제 회의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진군은 총 8년간의 노력을 거쳐 지난달 30일 환경부 공모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협의체 회의 및 타당성 조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작년 집중호우 당시 홍수로 인해 큰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업은 탐진강 수계의 상류인 금강천과 병영천의 홍수 조절 여건 및 수질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주민의 생활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군수는 "병영천댐은 병영천 주변의 시가지 주택을 홍수로부터 지키기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며 "관계 기관과 병영면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이순신대교 주탑 간 거리는 왜 1,545m일까?

광양만해전 승리 이끈 이순신 탄생년도

최초, 최장, 최고로 현수교 역사 새로 써

광양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탄신 제48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관광랜드마크로 우뚝 선 이순신대교가 있는 광양여행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웅장하고 유려한 자태로 광양만을 가로지르며 광양과 여수를 잇는 이순신대교는 건설 당시 최초, 최장, 최고라는 타이틀을 세우며 대한민국 현수교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순신대교는 총길이 2,260m, 왕복 4차선 규모로 설계, 시공, 장비, 감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최초' 전 공정 국내 순수 기술로 건설되어 2013년 2월 개통됐다.

현수교 길이의 기준이 되는 주탑 간 거리 1,545m는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1545년의 상징을 구현한 것으로 국내 '최장' 현수교라는 영예를 안겼다.

현수교 건설 기술의 핵심인 주탑 간 거리를 이순신 탄생연도로 설계한 것은 광양만이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최후의 전투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주탑도 당시 최고를 자랑하던 덴마크 그레이트 벨트교보다 16m 높은 270m로 세계 '최고'를 경신했으며, 해수면에서 상판까지의 높이 역시 80m로 국내에서 가장 높다.

하늘과 바다 사이의 평행선, 철로 만든 하프로도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이순신대교를 건너다보면 광양제철소와 광양만이 한눈에 들어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이순신대교는 대한민국 현수교의 역사를 다시 쓴 예술건축물이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과 탄생이 고스란히 담겨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마인드마크"라며 "대교의 명칭, 주경간장(주탑 간의 거리) 등에 얽힌 스토리, 기록들을 알고 나면 이순신대교가 이전보다 훨씬 값진 의미와 느낌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순신 장군 탄신일을 맞아 광양만의 광활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날 수 있는 광양여행을 계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순천시, AI 도입으로 안부 살핌부터 응급 대응까지

순천케어콜·순천살핌 안녕 앱·AI앰뷸런스 도입, 시민 안전망 강화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복지, 의료,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안부도 살피고 생명도 구하는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대화형 AI '순천 케어콜'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가구에 매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 AI는 이전 대화를 기억해 맞춤형 대화를 이어가며, 단순한 안부를 넘어 마음까지 살피는 '친절한 AI 복지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스마트폰을 활용한 '순천 살핌 안녕 앱'과 가전제품 사용 여부를 감지해 응급 상황을 파악하는'스마트 돌봄 플러그'도 운영 중이다.

현재 약 2,800여 명의 시민들이 AI 안부 살핌 케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8월 왕조1동에 거주하는 윤 모 씨가 '순천 케어콜'에 응답하지 않자 복지담당자가 가정을 방문, 기력을 잃고 누워있는 윤모 씨를 발견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 생명을 구한 바 있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AI앰뷸런스' 시스템을 도입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병원을 연결하고 최단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이송·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치료가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순천중앙병원 등으로 AI앰뷸런스 시범 운영기관을 확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성가롤로병원 주도로 다양한 응급 사례를 반영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서간 협력을 통한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함평군, 실내수영장 경유 농어촌버스 시범운행 실시

군민 편의 제고 위해 신규 노선 운영… 28일부터 2주간

전남 함평군이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공공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농어촌버스 노선 시범운행을 실시한다.

함평군은 "오는 28일부터 5월 11일까지 2주간 함평실내수영장을 경유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을 시범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행은 지난 1월 정식 개장한 함평실내수영장 접근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운행 노선은 기존 100-13번(함평공영터미널↔상옥리, 매동), 100-10번(함평공영터미널↔보여리)에 신규 노선인 '향교사거리↔함평실내수영장(2.9km)' 구간을 포함해 하루 총 8회 운행될 예정이다.

군은 시범운행에 앞서 21일부터 3주간 군 홈페이지, 마을 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며 시범운행 기간 탑승객 수, 수익률 등 실효성을 세밀히 분석해 향후 정규 노선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실내수영장은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활 기반 시설 개선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방사능방재교육 제3기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 실시

영광군,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주민 친화적 민간강사 양성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2025년 방사능방재교육 제3기 민간강사 양성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방사선비상 대비 주민의 자율방재역량을 책임지는 주민 친화적 민간강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교육과정은 크게 ▲방사능 방재 기본 및 심화 교육 ▲강의기법 ▲교안 제작 방법 ▲재난 시 주민 대피 요령 ▲개별 시연 평가 ▲주민용 보호용품 착용 요령 안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하는 민간강사는 군민들에게 친화감을 줄 수 있는 영광지역 사람들로 구성하였으며, 2023년 제1기 강사 17명, 2024년 2기 강사 18명을 양성하였다. 올해 제3기 아카데미는 기존 교육을 받은 강사 12명에 대하여 심화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제2기 민간강사는 영광군 11개 읍·면 경로당 135개소에 2,08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사능방재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교육을 통해 원자력과 방사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다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 방사능방재 내용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 2025년 청년 창업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5월 9일까지 모집, 6월까지 총 10회(주 2회) 교육과정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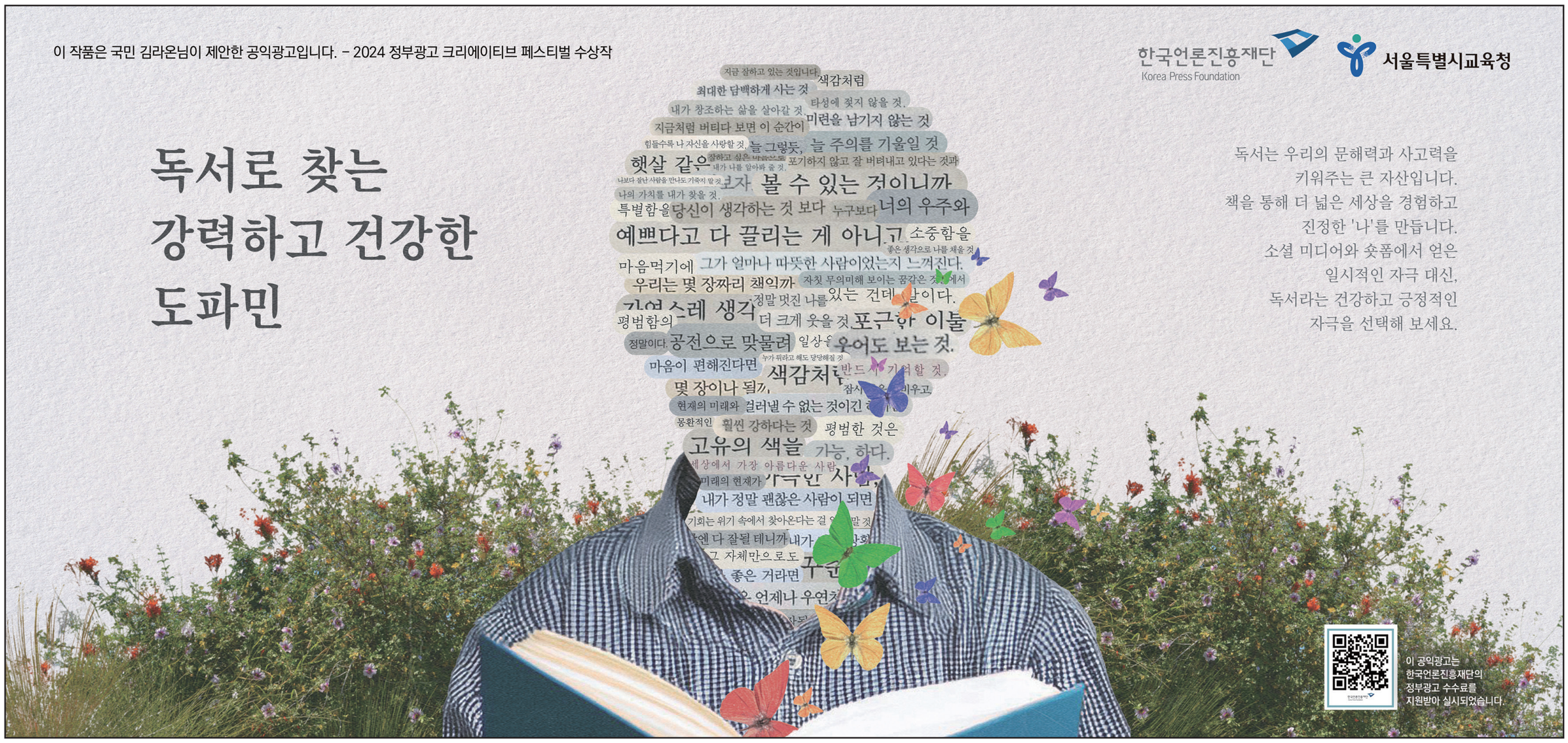
장흥군은 22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청년 참여 창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지역 축제 참여를 통해 창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추진한다.

교육은 총 10회(주 2회)구성으로, ▲지역자원조사 1회, ▲식음료 과정 3회, ▲체험·굿즈 과정 3회, ▲부스운영 과정 1회, ▲특강(스토리텔링) 1회, ▲선진지견학 1회로 진행된다.

우수 수강생에게는 올해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청년존에서 판매·홍보 부스 운영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존은 작년 물축제에서 낭만과 젊음이 가득한 특색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은 만큼 올해에도 체험 부스 운영, 편의시설 확충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청년의 활력과 행복이 있는 장흥을 만들기 위해 일자리창출,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